

여야 1월 임시국회 격렬 대치 北무인기·이재명 檢출석 공방

민주 본회의 안보위기 현안질의 요구 국힘 “체포동의안 방탄용 수용 불가” 정의당 “북 도발 국회 차원 대응 필요”

1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9일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사 일직 협의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이날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거듭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와 체포동의안인 한 차례 부결된 노웅래 의원의 ‘방탄’을 위한 목적으로 보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노웅래 의원 방탄을 위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노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 없이 바로 영장 심사가 될 것이고,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 의원이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봐서 명백히 방탄 국회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방탄 국회’ 비판이 두려웠는지 무인기 침투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면서 “이는 북한 무인기 방위에 관한 우리의 무기 체제와 시스템 등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관련 보고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양극희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검찰 소환

을 받아두고 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라는 방탄을 두르던 민주당에 북한의 무인기와 안보 위기는 현재의 정부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인 양 피아식별 없는 망언적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와 안보 불안 국면을 방지할 수 없다. 1월 임시회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국민의힘의 참여와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회를 소집한 구체적인 이유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후속 조치 마련,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침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꼽았다.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본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과 책임자를 불러서 진상을 정확히 따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거듭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의사일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 1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긴급 현안질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뒤 야당 단독으로 안보·경제 관련 현안질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위기 상황을 방치하며 여당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결단으로라도 국회의 문을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본회의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패에 대한 진상 파악과 북한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방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현안 질의와 결의안 채택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철수 당 대표 출마 선언...“수도권 총선 압승”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오직 총선 승리를 이룰 경쟁력만으로 당 대표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수도권 출마론” 등으로 신경전을 벌여온 또 다른 당권 후보인 울산·경남(PK) 출신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의 원이다.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과 중도 스윙보터, 2030 세대의 마음을 잘 안다”며 ‘수도권 출신’인 점을 부각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고,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이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보증인, 아니 운명공동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경쟁자인 김 의원이 ‘친윤’ (친윤석열)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총선 승리를 이끌 차기 당 대표의 3가지 요소로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대표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를 꼽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획일교육 탈피 다양성·실력향상 추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신년인터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9일 “학생이 다양한 역량을 키우도록 뒷받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도 기존의 평등 실현이나 수월성 추구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는 획일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 역점 과제로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을 통해 아이들의 꿈 실현 지원, 인공지능(AI) 교육 등 AI미래도시 광주와 함께하는 교육, 시민협치를 통한 인재 육성의 선순환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 일문일답.

-광주교육 운영 방향은

▲다양성의 시대다. 교육도 획일성에서 탈피해야 한다. 세상은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데, 교육은 아직도 제자리다. 교육에 다양화를 담아내 학생 개인의 달란트를 끌어내겠다.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I미래도시 광주와 함께하는 교육도 추구한다. 협치를 바탕으로 광주가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광주를 키우는 선순환 교육을 정착시킬 것이다.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역점 사업이다. 우선 다양한 학습 형태를 지원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인 스터디카페형 365-스터디룸을 설치한다.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교과 1대입 전문 디렉터를 양성·배치하고, 초등학교에 기초학력전담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진학과 기초학력도 꼼꼼히 챙기겠다.

-광주형 미래학교를 소개해달라

▲미래교육과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미래학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에 기반한 학교자치 강화와 행정 지원 적정화를 추구한다. 학생의 다양한 꿈을 실현하는 광주형 미래학교는 자율성, 미래성, 포용성, 다양성, 공공성의 핵심가치를 아우르는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형 미래학교는 지역사회, 학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모형을 개발·실



AI도시 광주와 함께하는 교육 추구 한명의 아이도 포기 않는 교육복지 자치·혁신 광주형 미래학교 준비

천하는 자치학교, 모두 잘 살을 위한 교육과정 실천공동체를 운영하는 혁신학교, 주체 영역, 학교급, 수행 과제에 따른 연구학교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교육복지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학생들이 환경 때문에 꿈이 작아지지 않도록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교육의 기회를 공평

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교육비 지원 확대, 꿈드림 사업 추진, 학교 자율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설립, 특수교육대상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다가치센터 설립·운영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교과서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빠졌는데.

▲최근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빠지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시교육청의 의지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민들과 국민에게 말씀드렸다. 다행스러운 점은 성명서를 발표하자마자 교육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빠진 부분을 지적하는 등 2022개정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모든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5·18의 전국화,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다.

-3월 시행하는 조직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미래교육을 대비한 조직개편이다. 분청을 슬림화해 기획과 조정 기능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역 및 지속기관 권한 확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시민협치진흥원을 신설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제안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 송정도서관에 다문화 관련 과를 신설해 송정다문화도서관으로 개편해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도 적극 챙길 것이다.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성을 품은 새롭고 혁신적인 광주 실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논의와 대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 방문, 교육가족과의 소통 시간 등에 참여하면서 광주교육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는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광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율 40.9%...4주 연속 40%대

리얼미터 조사...부정 평가 55.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4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이달 2~6일(1월 1주차) 전국 성인 남녀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9%, 부정 평가는 55.9%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전주 보다 긍정 평가는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2월 3주차에 41.1%를 기록, 지난 6월 이후 24주만에 40%선을 회복했다.

이후 전주(12월 5주차) 40.0%로 소폭 하락했다가 이번주 반등하기까지 4주째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정 평가도 12월 3주차 56.8%에서 56.6%, 57.2%, 55.9%로 소폭 등락을 반복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3.9%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상승한 40.4%를 기록하며 윤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